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요한복음 8:1-11

본문의 내용은 옛날 성경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가르쳐준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밤새워 찾고 찾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은 것 같다. 이른 아침 예수님이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그 여자를 끌고와서 많은 군중들 앞에 세웠다. 점잖은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어두운 밤길에 음침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여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한 장면을 찾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하여 궁지에 몰아넣고자 한 것이다. 어느 시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오히려 스스로 죄인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만다.

I.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4-5절을 읽어보자.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 함이라고 했다.

왜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려들기 쉬운 아주 미묘하고 야비한 질문이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할 것이고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요 3:17)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말과 배치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를 공격할 빌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악의적인 행동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II.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고 계셨다. 그들은 계속 답변을 제촉 한다. 아마 긴장은 더욱 고조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천천히 일어나 신후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현명한 답변이다. 바리새인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다. 예수님은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시지도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범법자가 되지도 않았다. 그들이 걸고자 하는 올가미를 예수님은 지혜롭게 벗어나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날카로운 역공을 가하신다.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율법과 양심을 사용하여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 악한 죄인됨을 알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혼비 백산 도망을 가고 만다.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허물이 크게 드러나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자 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허물부터 찾아 그 허물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7:4-5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드러다 볼 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 질 때 자기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남의 허물만 보게 된다. 혹이라도 우리가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면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내면의 양심을 드러다 보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양심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해주는 우리의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양심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양심은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다.

양심은 약하고 무력하다.

양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양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양심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친한 친구다. 목회자는 설교할 때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양심은 목회자가 죄를 꾸짖을 때 가장 친한 친구다. 목회자는 설교할 때 청중들의 양심을 자극함으로 죄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양심은 어머니가 자녀와 이야기할 때 가장 친한 친구다.

양심은 어머니가 자녀를 악에서 지키려고 할 때 가장 친한 친구다.

Ⅲ.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 여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9b)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묻는다.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한다.

11a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1b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니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집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회개는 느낌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회개는 올바른 말만을 하는 것이다.

회개는 상황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가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악행을 그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습관을 끊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죄에서 돌이켰는지 살펴보자.

우리 자신이 죄의 습관을 깨뜨렸는지 살펴보자.

“나는 모든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자.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단은 끊임 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으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
어 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
는 대항하지 아니하고”(히 12:4)라고 성경은 말한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 없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차 확인을 받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차단기
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뒤에서 차가 계속 줄을 서 있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카드로 주
차비를 지불하고 차단기가 열려서 나오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그러나 주차 확인을
잘못해 주는 식당에 부드럽게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이
해 시키는데 부드러운 말로 설명을 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어 그냥 참고 말았다. 다음에
그 식당에 가서 지난 이야기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실수 했는데 너무 점잖게 대해 주어서 감사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적은 행동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말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우리는 항상 말로나 행동으로나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자. 혹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자.

요한일서 1:8-9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